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라파트 해결 촉구 건의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로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돌발사고가 아닌 위험요소가 누적되어 발생한 예견된 재난이기에 안타까움은 더하다.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사고들을 계기로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15년째 아파트 붕괴라는 위험에 노출된 성북구 정릉3동 시민들의 안전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라파트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고 붕괴 위험 또한 매우 높아 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할 E,D등급 판정을 받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재난위험시설물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08년 입주민 대피 명령 및 재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도 7년이 지난 지금, 잔류중인 16세대(31명)는 여전히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이주비 지원을 통해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 대부분이 60~70대 고령으로, 일반 아파트는 고사하고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관리비 부담 능력의 부재로 이주비 지원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거주민들은 장기 임대주택 확보와 적정가로의 아파트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주 장기화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미 7년 이상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및 성북구가 스카이라프트에 취하고 있는 안전조치는 위험시설 안내문 설치, 공사 세대 출입문 폐쇄, 계층기 설치, 외부계단 보수·보강 등 기본적인 관리 조치들 뿐으로 이 역시 붕괴 및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잔류중인 거주자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주거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끝없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이렇듯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재개발사업 등 민간에 의한 해결책만이 답인 냥,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스카이라프트가 포함된 재개발사업 또한 2005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자연경관지구 규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서울특별시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데, 이미 이 지역은 내부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당초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이 훼손된 지 오래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기약없는 재개발사업만을 기다리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모른 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안일한 대처로 또다시 사후약방문식 재난 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예견된 재난사고로부터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이상의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서울특별시는 스카이라파트 부지를 전면 수용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붕괴 위험으로부터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는 스카이라파트 부지를 수용하여 공원, 문화복지시설, 임대주택 등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는 이미 자연경관지구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스카이라파트 주변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부분 해제와 층수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 3. 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